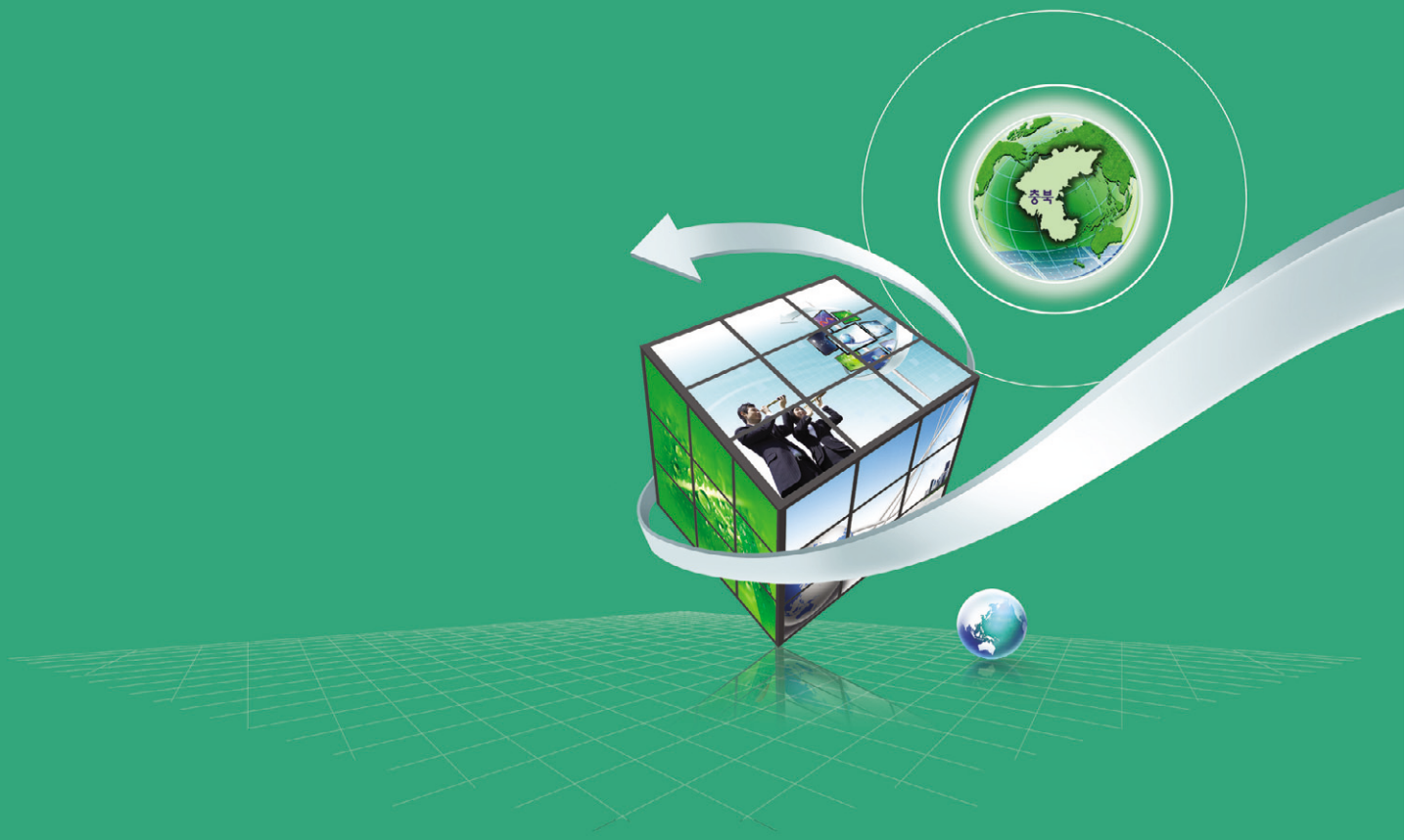
충북경제 FOCUS

2009년 충북경제 진단 및 2010년 충북경제 전망

조 택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충북경제 Focus』는 충북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분석과 충북의 영향 및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충북의 발전을 위한 이해 제고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발간하는 심층적 경제정보동향지입니다.

본 『충북경제 Focus』의 내용은 자체 연구물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충북경제 FOCUS 제1호(2009-1)
(2009. 12. 24)
내용문의 : 조택희 연구위원(043-220-1101)
자료문의 : 발간자료 담당자(043-220-1107)

본 포커스의 내용은 CR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cri.asia

2009년 충북경제 진단 및 2010년 충북경제 전망

조 택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 약〉
Ⅰ. 서론
Ⅱ. 2009년 충북경제 결산
1. 충북지역 경기
2. 충북지역 산업활동
3. 충북지역 고용
4. 충북지역 소비
5. 충북지역 물가
6. 충북지역 금융
7. 충북지역 수출 · 수입
Ⅲ. 2010년 충북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전망
2. 충북경제 전망

요 약

❑ 2009년 충북경제는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듬

○ 산업생산활동은 1/4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인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9월 산업생산은 18.5% 증가함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완화되면서 소폭 증가세로 나타남

○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며 9월 현재 19.3% 감소함

○ 지역고용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

○ 2009년 물가는 전국보다 낮은 상승세 유지

○ 지역 금융시장은 여 · 수신 모두 증가세 이지만, 증가폭은 점진적 축소

❑ 2009년 충북 경제성장률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충북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전국 산업생산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됨

❑ 2010년에는 민선4기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 21조원의 투자가 현실화 되면서 5.0%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됨

○ 2010년은 충청북도가 투자유치한 163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 및 생산 활동을 하면서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 다만 반도체 가격과 유가,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 등 도내 각종 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다소 영향 받을 가능성 상존

❑ 민간소비는 고용확대와 인구유입으로 3.8% 증가 전망

○ 고용사정이 전국수준보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실업률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12.8% 증가 전망

○ 민선4기 적극적인 신규 투자유치로 전국적인 설비투자 증가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며 3.0% 증가 전망

○ 대규모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

❑ 수출은 충북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4.5% 증가 전망

○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17.2% 증가 전망

○ 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 인상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입물량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

❑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확대

○ 2010년 지역 고용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되며 완만한 증가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물가는 전국 추세와 동행하는 가운데 2.7% 대의 상승률로 안정적 수준 전망

Ⅰ. 서 론

❑ 2009년 한해 충북지역경제는 기업의 산업생산활동이 전년도의 하락세가 1/4분기까지 지속된 이후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 도내 기업들의 체감경기(BSI)는 연초에 비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한 수치였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며 제조업(91) 및 비제조업(84)의 기업체감경기 부진이 크게 완화됨

○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9월 현재 전년누계 대비 19.3% 감소

○ 물가는 국제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유류제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되면서 10월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1.8%로 전국 평균(2.0%)을 하회하는 수준

○ 고용시장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2010년 전국 경제성장률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경제성장률은 전국 상승률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충북 산업생산활동 증대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으로 2009년 충북경제 경제성장률 또한 증가 될 것으로 전망

- 원화강세, 유가 상승 등은 수출과 물가안정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국제경제분위기에 맞춰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해 질 것임

○ 기업의 투자의욕 증대로 설비투자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정부주도하의 투자가 감소하여 금년보다는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

○ 물가상승압력이 소폭 확대 되면서 충북 물가는 2009년의 하반기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지역경제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2009년 충북경제 결산

1. 충북지역 경기

❑ 현재의 경기상황을 설명하는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는 2009년 초 하락 출발하여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였지만 8월 잠시 주춤한 이후 9월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9월 110.6을 기록 함

○ 2009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하락, 5개월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상승세

○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금년 2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3월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6월 이후 기준치 100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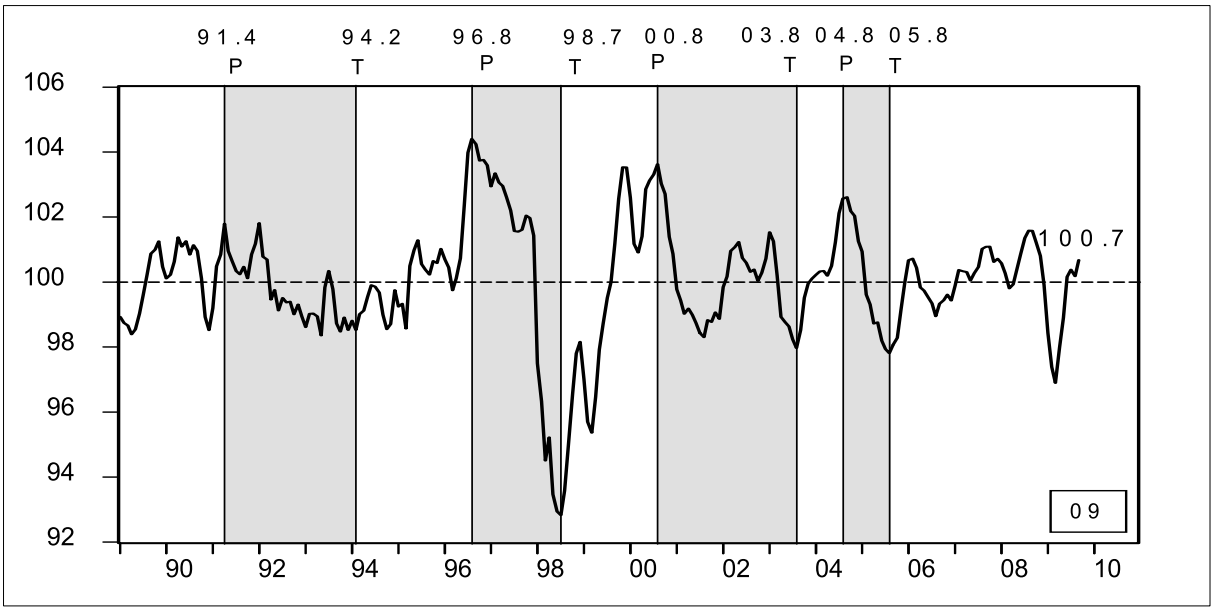
- 2009년 9월 현재 충북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7을 기록함

표 1.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 (단위:%, p)

구 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동행종합 지수	107.2	106.2	105.8	107.1	108.2	109.7	110.0	109.9	110.6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1.4	-0.9	-0.4	1.2	1.0	1.4	0.3	-0.1	0.6
순 환 변 동 치	98.3	97.2	97.0	98.1	99.0	100.2	100.4	100.2	100.7
순환변동치 전월차	-1.5	-1.0	-0.5	1.1	0.9	1.2	0.2	-0.2	0.5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동향분석팀

그림 1. 충북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동향분석팀

❑ 기업체감 경기의 부진국면이 완화되면서 BSI 상승세

○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표인 업황 BSI는 6월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현재 기준치 100을 하회한 제조업 91, 비제조업 84를 기록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경기 모두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기업체감경기는 비제조업 부문이 제조업보다 다소 부진함
- 충북 제조업 BSI는 연초부터 5월까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전국 경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6월 이후 전국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제조업 BSI의 경우 연초 48(기준치 100)로 출발하였으며 꾸준히 상승하면서 10월 91을 기록 함
- 충북 비제조업 BSI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제조업의 경우 전국에 비하여 경기 완화 속도가 다소 더딘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BSI는 연초 53에서 출발한 BSI가 10월 84까지 상승하며 체감경기가 다소 좋아졌으나, 기준치 100 이하로 여전히 부진한 편임

○ 업황 전망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상승하면서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이 높아짐

- 11월 전망 BSI는 더욱 상승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95, 83을 기록 하면서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p
제조업	48	51	56	74	80	77	80	83	90	91	95
	(47)	(43)	(57)	(69)	(74)	(77)	(81)	(86)	(90)	(92)	(93)
비제조업	53	50	56	64	70	68	72	75	81	84	83
	(59)	(59)	(61)	(71)	(74)	(76)	(76)	(76)	(78)	(84)	(84)

주 : 1) 괄호안은 전국BSI , p는 전망 BSI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2. 충북지역 산업활동

❑ 2009년 충북지역 산업활동은 2008년의 하반기 침체를 이어가며 두 자릿수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출발하였으나, 점차 감소폭이 축소하다 4월이후 증가 전환함

○ 1월 생산지수, 출하지수가 각각 −18.2%, −14.1%의 높은 감소세로 출발하였고, 재고지수도 30.0%로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 현재 산업생산지수가 18.5% 증가한 가운데, 출하지수도 17.6% 증가로 회복세임

○ 2009년 산업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의 전년누계비가 9월 현재 2.8%, 5.5%, −0.4%를 나타냄

- 전년(2008년) 산업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0%, 10.9%, 27.0% 증가함

표 3. 충북산업 생산활동 지수 (계절조정지수, 2005＝100)

시점	계절조정지수			전년동월비			전년 누계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09/01	108.5	115.7	196.8	-18.2	-14.1	30.0	-18.2	-14.1	30.0
09/02	120.0	127.2	179.0	-8.8	-5.6	12.2	-13.5	-9.9	20.8
09/03	127.3	134.8	175.2	-2.1	2.4	3.1	-9.7	-5.8	14.6
09/04	133.3	141.0	173.8	5.2	5.3	3.3	-6.1	-3.1	11.6
09/05	134.3	142.4	174.1	2.6	6.4	-1.6	-4.4	-1.2	8.8
09/06	139.8	149.3	176.2	6.7	9.9	-5.1	-2.5	0.7	6.3
09/07	148.8	155.0	186.1	11.7	14.1	-6.5	-0.5	2.6	4.2
09/08	141.1	153.7	180.5	10.9	13.3	-11.1	0.9	4.0	2.0
09/09	153.3	159.3	171.5	18.5	17.6	-16.5	2.8	5.5	-0.4

자료 : 통계청(KOSIS)

❑ 산업생산활동 증가세 유지

○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1/4분기에 감소세로 출발하였으나, 4월 들어 증가로 전환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율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9월은 18.5% 증가세임

- 산업생산지수의 누계비 증가율은 전국(-6.7%)은 감소하였으나, 충북은 2.8% 증가하면서 전년(2008년)의 하반기 침체에서 회복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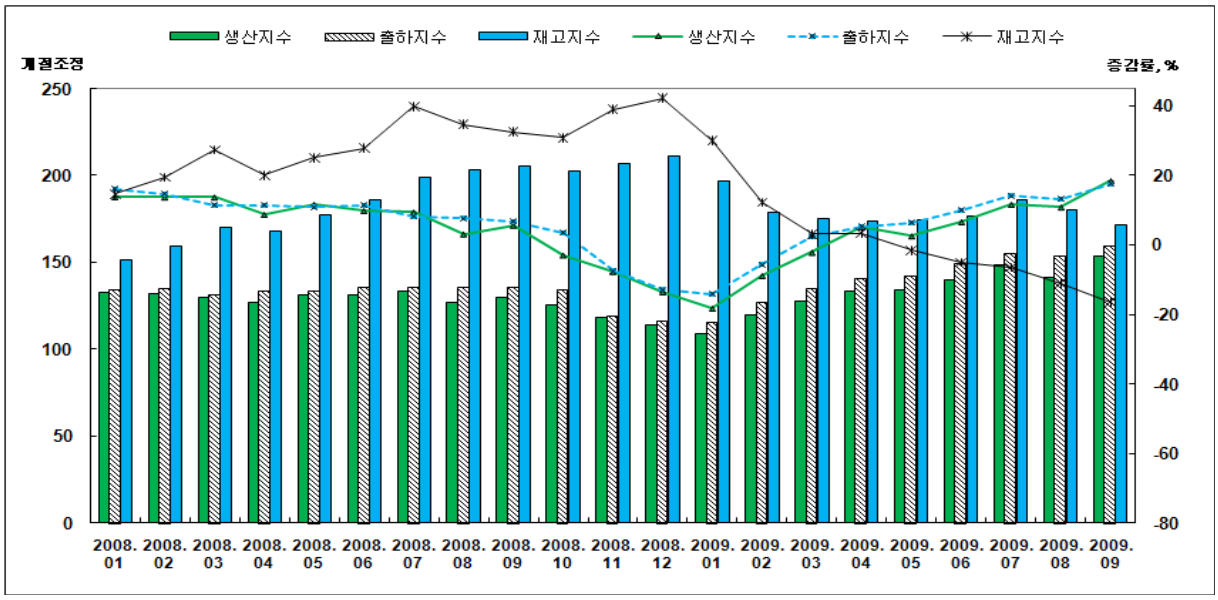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도 증가세 유지

- 1월 출하지수는 14.1% 감소하면서 높은 감소세로 출발하였지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9월 현재 17.6% 증가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누계비도 5.5% 증가하였으나 전년(10.9%)보다는 낮은 수준임

○ 재고지수는 연초 증가세에서 하반기 감소세 전환

- 재고지수는 연초 30.0% 증가로 출발하여 4월 3.3%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5월 1.6% 감소 전환하면서 9월 16.5% 감소세가 지속됨.
- 전년 누계비로 0.4% 감소하여 2008년(+27.0%)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그림 2. 산업생산활동 추이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 2009년 충북 산업생산활동은 전국에 비하여 호전

○ 2009년 충북의 산업생산활동은 1/4분기와 2/4분기 감소세를 보이며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3/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3/4분기 충북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13.7%로 전국 2.4%를 상회 함

-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산업생산활동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여전히 전국 평균

을 상회하고 있어 전국 산업활동에 비하여는 호조를 보임

- 전년(2008년)에도 충북의 산업생산지수는 5.2% 증가하면서 전국 3.0% 증가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함

○ 따라서 2009년의 충북 산업생산활동은 전년(2008년) 하반기의 침체에서 상반기까지 감소세 지속 이후 회복하는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보다 높은 산업생산활동을 보임

표 4. 산업생산지수 추이 (계절조정지수, 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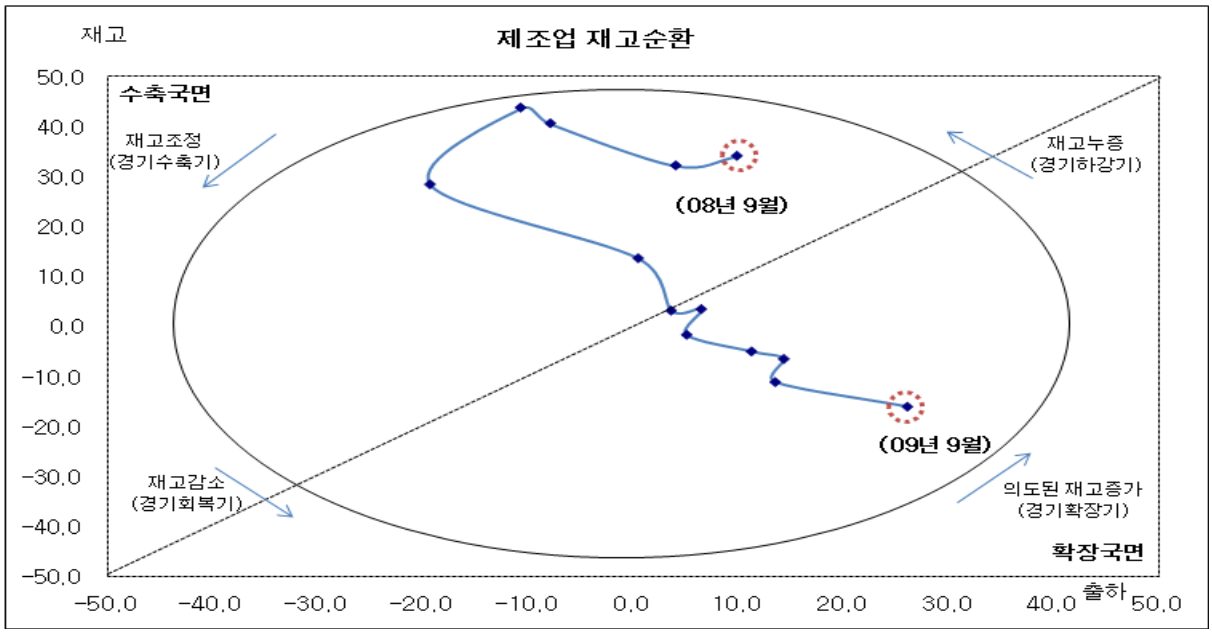
	2008 1/4	'08 2/4	'08 3/4	'08 4/4	2009 1/4	'09 2/4	'09 3/4
산업생산지수	131.4	129.5	129.9	119.1	118.6	135.8	147.7
	(124.2)	(124.3)	(121.9)	(107.4)	(104.5)	(116.4)	(124.8)
증감률 (전년누계비)	13.9	12.0	10.0	5.2	-9.7	-2.5	2.8
	(11.4)	(10.5)	(8.3)	(3.0)	(-15.9)	(-11.1)	(-6.7)

주 : 괄호안은 전국임.
자료 : 통계청

○ 재고순환을 보면 2009년 2월까지 재고순환지표는 수축국면에 위치하였지만 3월 이후 확장국면으로 진입함

- 따라서 연초 수축국면서 재고 감소율이 확대되고, 생산 출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 되면서, 3월 이후 확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제조업 재고순환 추세



주 : 재고순환지표: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지표

❑ 충북의 주력산업이면서 수출주력제품인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활동의 빠른 회복세

○ 연초부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증가율은 연초 28.4%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감소폭이 크게 개선되면서 9월 현재 39.2% 증가

– 또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전자부품 산업생산과 더불어 연초 감소세에서 출발하였으나, 큰 폭으로 개선되며 9월 현재 82.0%의 높은 상승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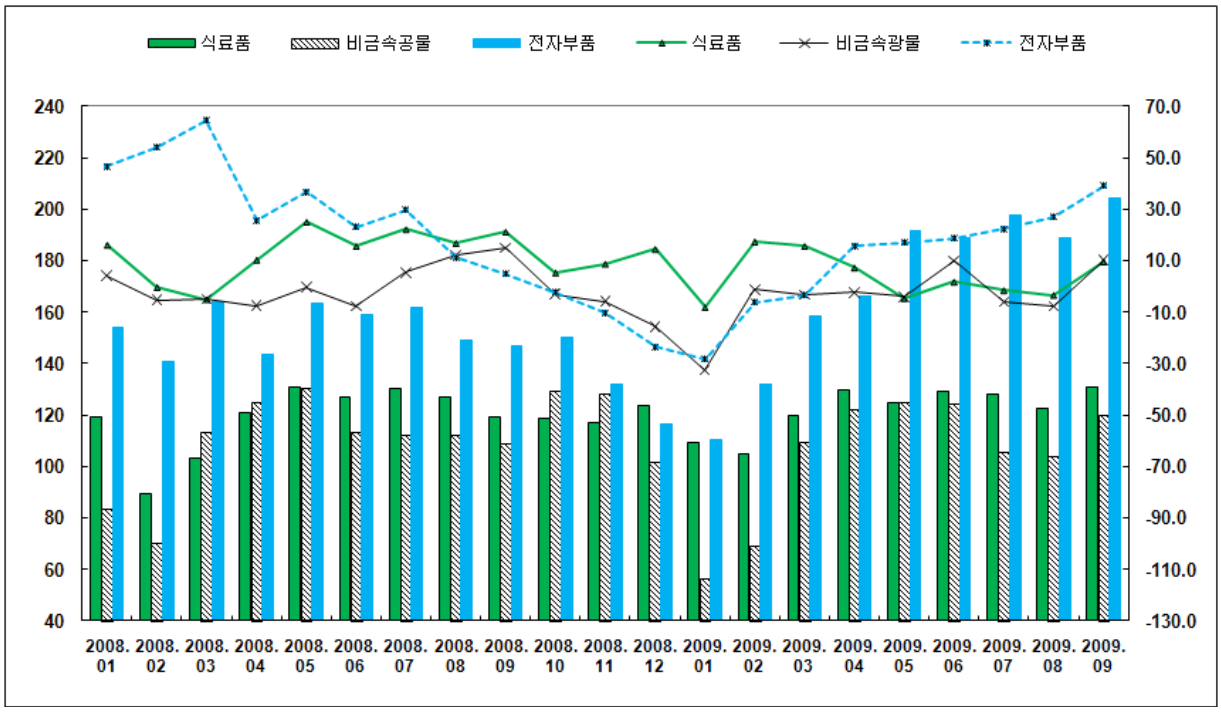
표 5. 산업별 산업생산지수 증감율 추이 (전년동월비)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국	-25.5	-10.0	-10.5	-8.2	-9.0	-1.1	0.7	1.1	11.0
충 북	-24.4	-1.2	-1.1	6.3	1.6	7.8	11.8	11.2	26.9
식료품	-8.1	17.5	15.8	7.4	-4.6	1.8	-1.5	-3.3	9.7
화합물	-20.0	-1.0	8.9	24.4	25.7	24.2	56.0	53.6	82.0
비금속광물	-32.6	-1.3	-3.4	-2.3	-4.1	9.9	-6.1	-7.7	10.2
전자부품	-28.4	-6.3	-3.3	15.5	17.1	18.6	22.2	27.0	39.2

주 :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림 4. 주요산업의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 대표적 내수관련 산업인 식료품과 비금속광물산업은 변동폭 확대

- 식료품 생산은 1월 전년동월대비 8.1% 감소로 출발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9월 현재 9.7% 증가
-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비금속광물산업은 1월 32.6% 증가로 출발 하였으나 국내 건설경기 둔화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9월 현재 10.2% 증가 전환

3. 충북지역 고용

❑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됨

○ 충북 취업자수 증가율은 9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2.1% 증가(전국 평균 −0.4%)

- 9월 현재 전년 누계비로 농림어업은 −2.5% 감소하였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1.6%, 0.5% 증가(전국은 각각 −0.7%, −3.8%, +0.4%)

표 6.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율 추이 (전년동월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전체	1.9 (-0.4)	0.6 (-0.6)	2.5 (-0.8)	2.2 (-0.8)	2.2 (-0.9)	2.6 (0.0)	1.0 (-0.3)	2.7 (0.0)	2.9 (0.3)	2.1 (-0.4)
농림어업	-9.3 (1.2)	-12.0 (0.5)	-9.4 (1.4)	-6.5 (0.0)	-2.8 (-2.6)	-2.4 (-1.3)	-1.2 (-1.2)	7.3 (-1.9)	7.8 (-1.0)	-2.5 (-0.7)
제조업	10.5 (-3.2)	7.9 (-4.4)	19.5 (-4.7)	12.3 (-3.9)	14.9 (-3.5)	6.7 (-3.9)	13.5 (-4.3)	7.9 (-3.5)	11.9 (-3.0)	11.6 (-3.8)
서비스업	1.2 (0.1)	0.9 (0.2)	0.9 (-0.2)	1.7 (-0.2)	0.0 (-0.2)	2.7 (1.0)	-1.9 (0.7)	0.2 (1.0)	-0.8 (1.1)	0.5 (0.4)
건설업	-4.4 (-2.4)	0.2 (-1.0)	-5.8 (-3.9)	-2.8 (-6.7)	4.8 (-6.6)	5.6 (-4.7)	-7.3 (-7.0)	7.4 (-5.9)	-1.4 (-4.2)	-0.4 (-4.8)

주 : 괄호안은 전국임.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7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8월 증가 전환하였으며, 제조업은 매월 증가하며 충북 고용증가에 핵심적인 역할
  ·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율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9월 현재는 0.8% 감소함

○ 2009년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부문 취업자수는 전국이 3.8% 감소한 반면 충북은 11.6% 증가하였으며

특히 3-5월에는 3개월 연속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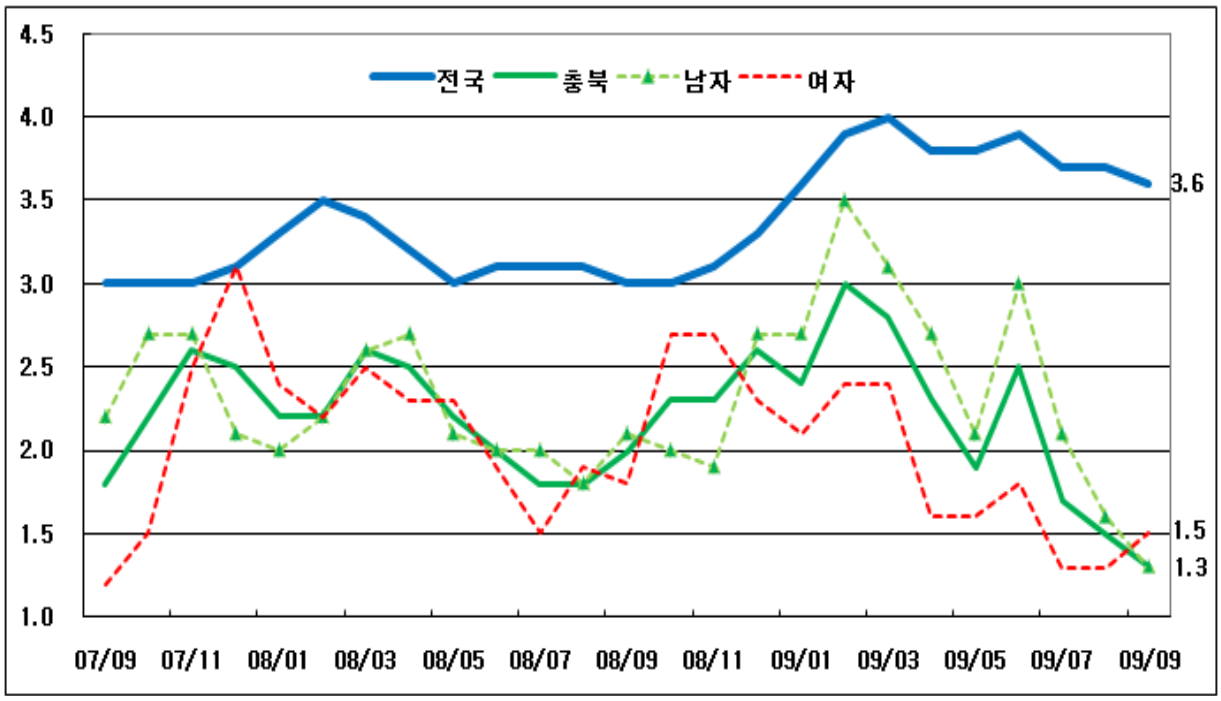
○ 건설업 부문은 지역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취업자가 증가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0.4% 감소(전국은 4.8% 감소)

❑ 도내 실업률은 연중 3.0%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 외형적 고용상황을 반영하는 충북의 2009년 실업률은 2월 3.0%로 2009년 최고치를 나타냄

- 2008년 하반기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됨으로서 실업률이 안정되었으며, 9월 현재 연초(2.4%) 보다 1.1%p 낮은 1.3%를 기록함

그림 5.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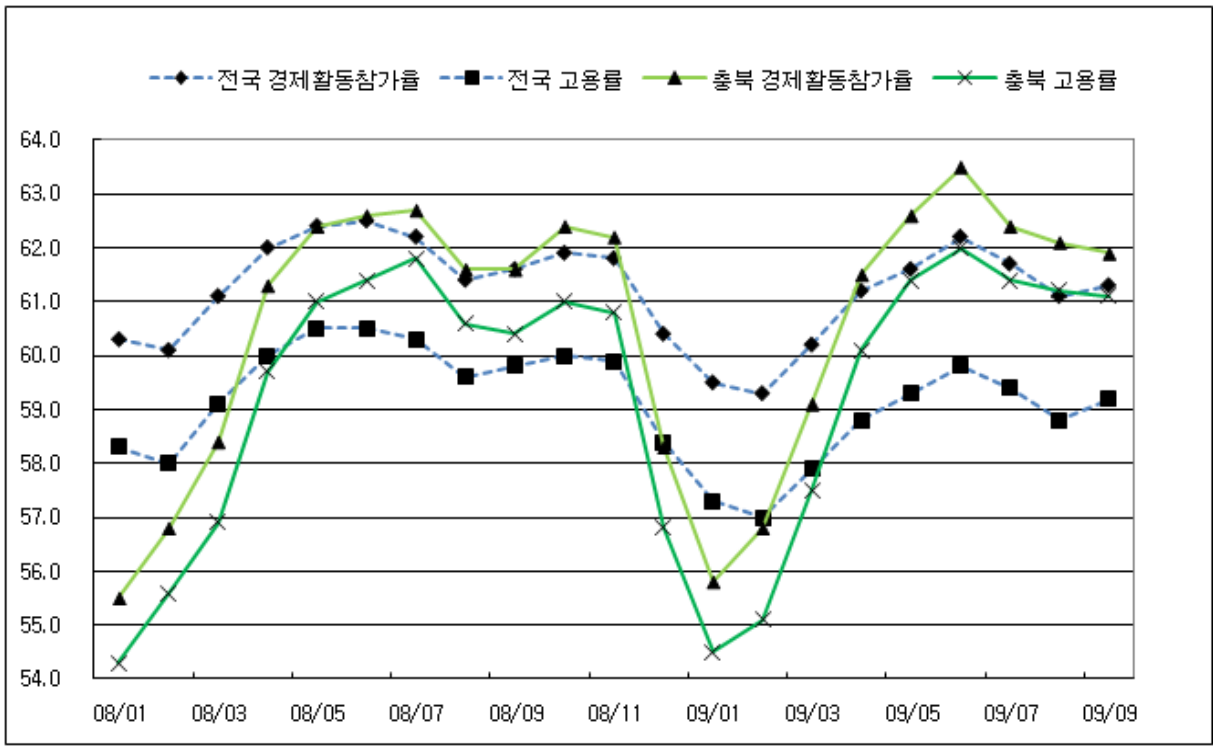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지역고용사정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4월 이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충북의 200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반기에는 전국평균보다 낮았지만 하반기에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면서 지역고용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고용률 또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국평균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율 추이



자료 : 통계청

4. 충북지역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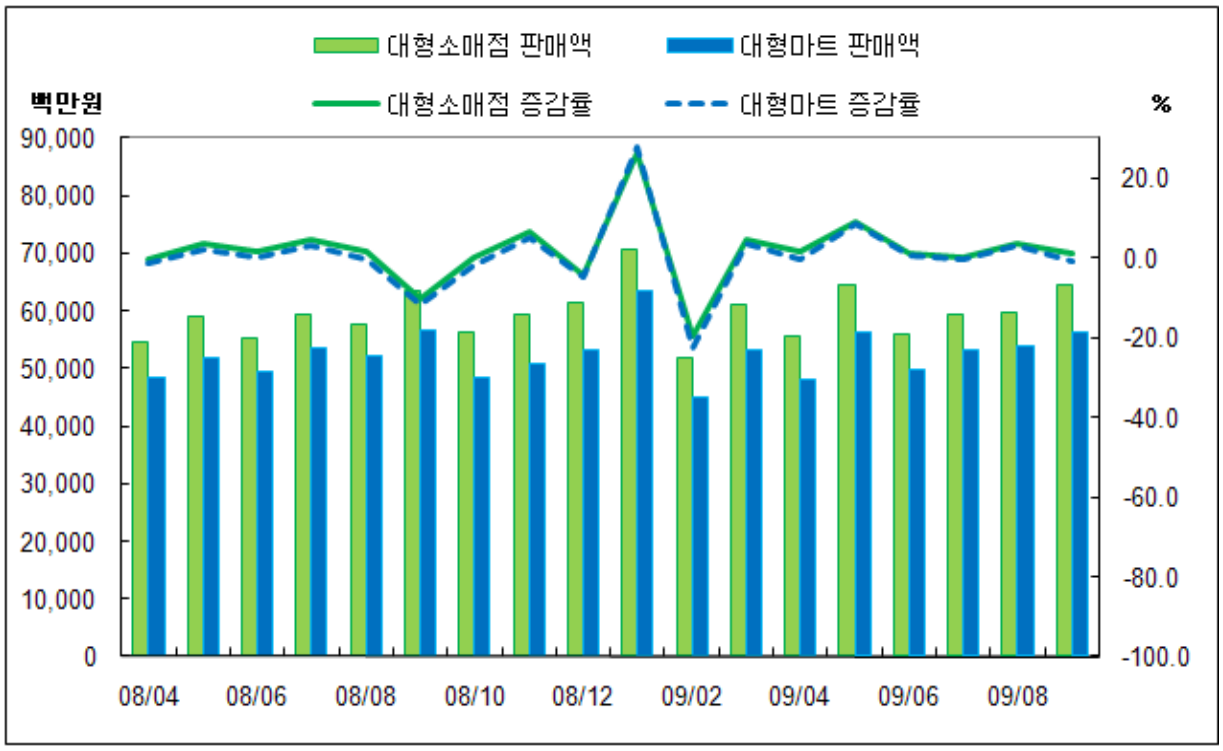
❑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증가세를 유지

○ 2009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 대비 26.4% 증가한 70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9월 현재 전년누계대비 2.7% 증가함

- 2월과 7월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월에는 19.7% 감소함

○ 대형마트 판매액 또한 대형소매점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2월, 4월, 7월, 9월 감소하여 9월 현재 전년 누계비로 1.8% 증가함

그림 7.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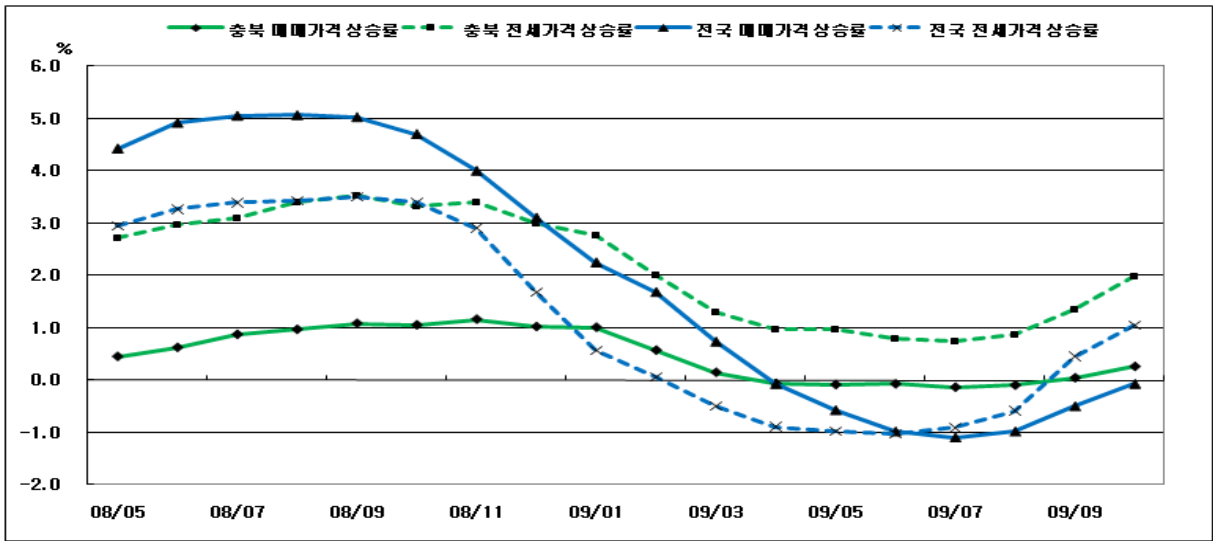
❑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 추세

○ 충북의 주택 매매가격은 1월 1.0% 상승으로 출발하였으나, 4월부터 8월까지 감소한이후 9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10월 현재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함

- 매매가격 지수는 10월 현재 100.6(2008년 12월 =100 기준)으로 0.3% 상승(전국 0.1% 감소)
- 전세가격은 1월 0.6% 상승 출발하였으나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8월까지 지속되다 9월 상승 전환하였으며, 10월 현재 전국 1.0% 보다 높은 2.0% 상승함

○ 전년동월대비로 충북 주택 매매 가격 변동 추세는 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변동폭을 보면 충북이 전국보다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 (2008. 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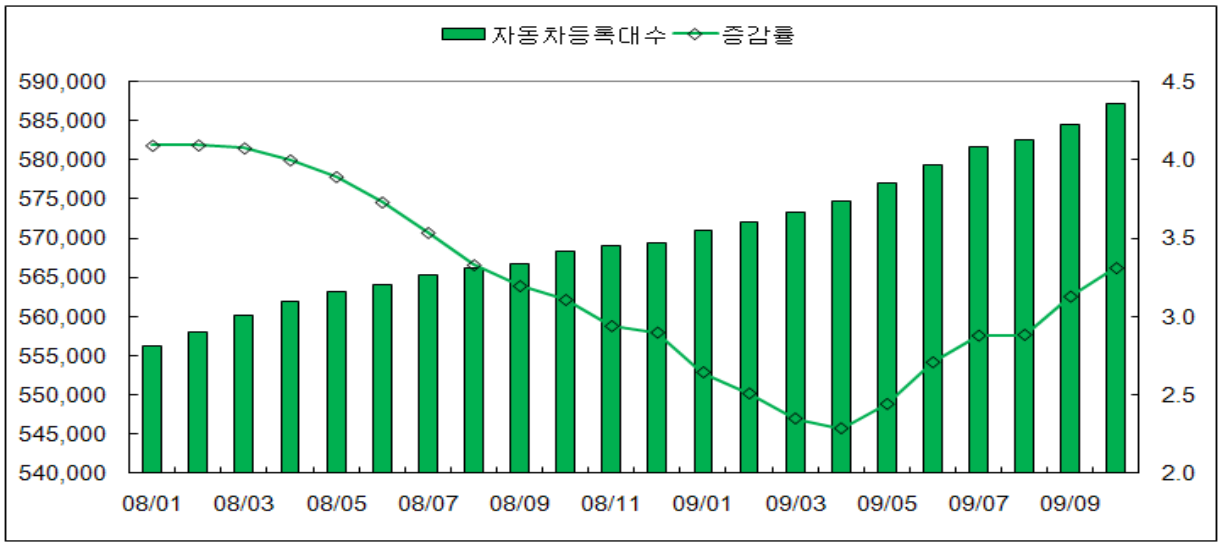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국민은행

❑ 2009년 10월 현재 충북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87천대

○ 충북 자동차 등록대수의 70.6%인 414천대가 승용차인 가운데 자동차의 월평균 증가율은 0.3%로 전년도 월평균 증가율(0.21%)보다 증가되었으며 작년 12월 대비 17.6천대가 증가함

–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1월 2.5%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0월 현재 3.3% 증가함

그림 9.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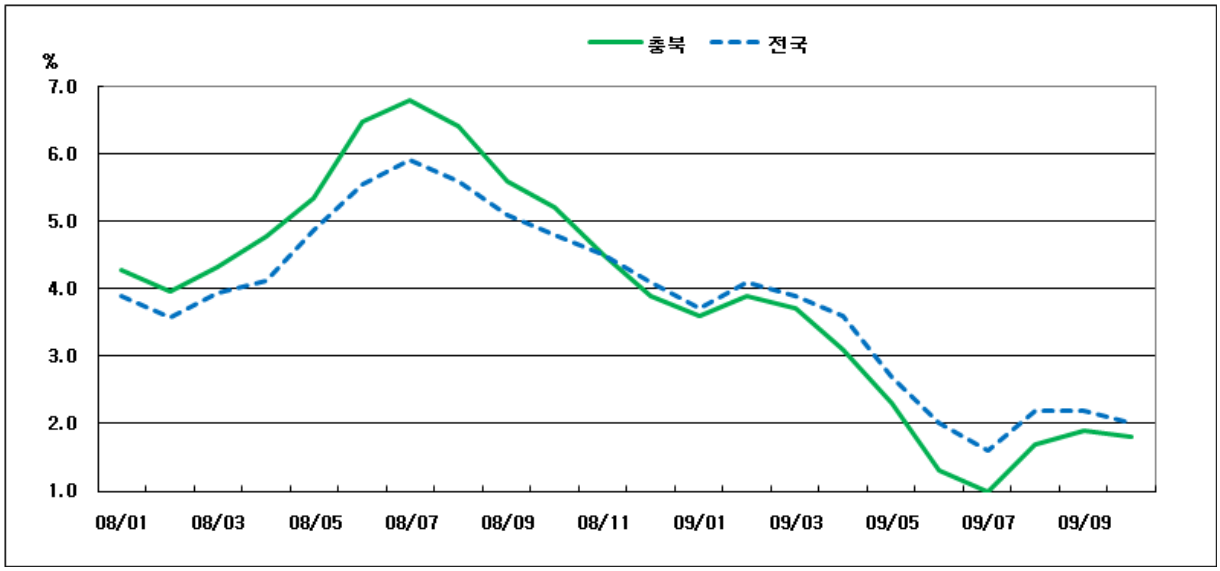
5. 충북지역 물가

❑ 2009년 소비자물가(CPI)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증가율을 유지

○ 2009년 충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 3.9% 상승으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둔화되다 8월 이후 증가폭이 소폭 증가하면서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은 연초 세계 경제위기로 원유가격 및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누계대비 2.4% 상승하여 전국평균 2.8% 상승 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세로 나타남
  · 충북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전국 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임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3.0%를 하회함

그림 10.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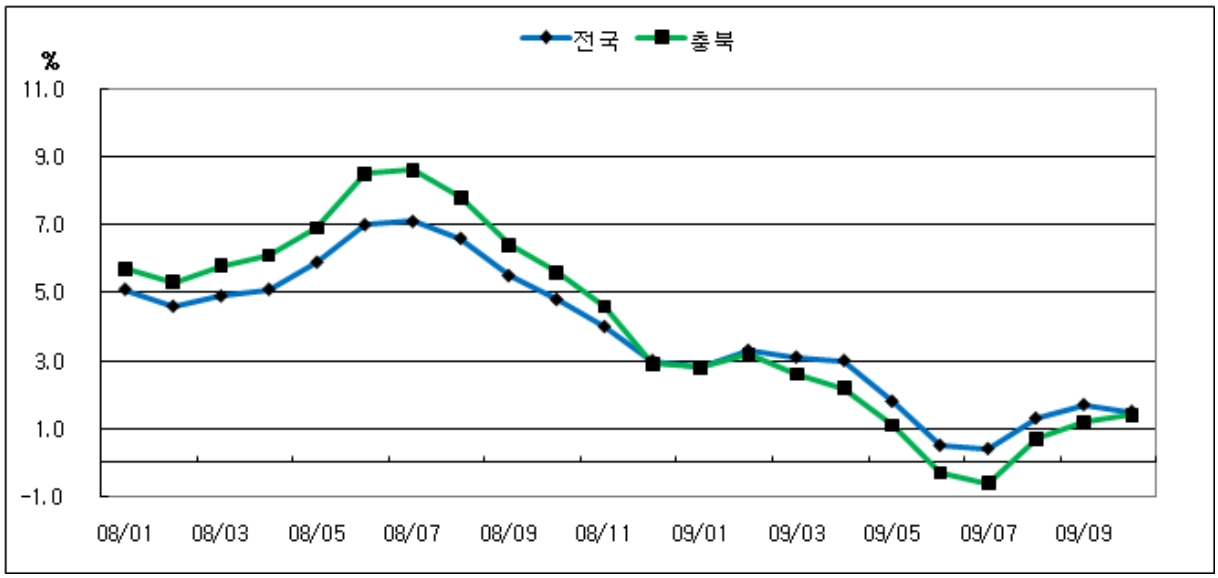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폭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게 나타남

-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8월 상승 전환하며 10월 현재 1.4% 낮은 상승률을 기록함
  · 충북은 전국평균 1.5% 상승보다 0.1%p 낮은 수준임
- 2008년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누계대비 1.4%증가하여 소비자물가지수(2.4%)보다 1.0%p 낮은 상승률을 보임

그림 11.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6. 충북지역 금융

❑ 금융기관 총수신과 총여신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상승폭은 점진적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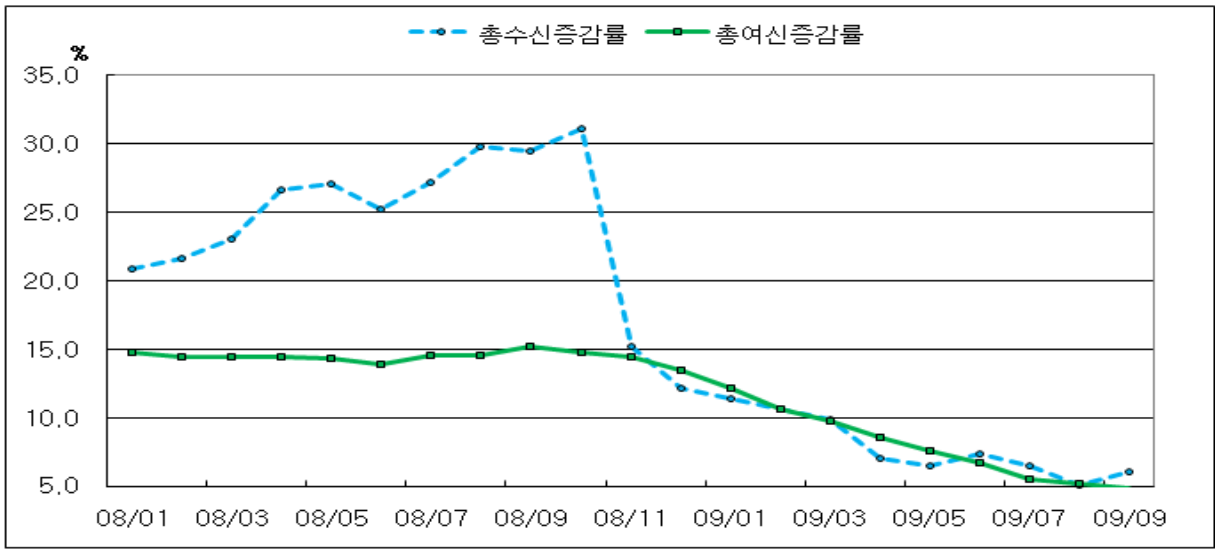
○ 충북지역 총수신 잔액은 2009년 9월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28조 8,849억 원으로 1월 11.4% 증가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됨

- 2009년 초부터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율(8.8%)이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1.6%)보다 높게 나타남.

○ 2009년 총대출 증가율은 총수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9월 현재 총여신 잔액은 22조 2,929억원을 기록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5.7%로 비예금은행 대출 증가율 3.9% 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2. 총여신 및 총수신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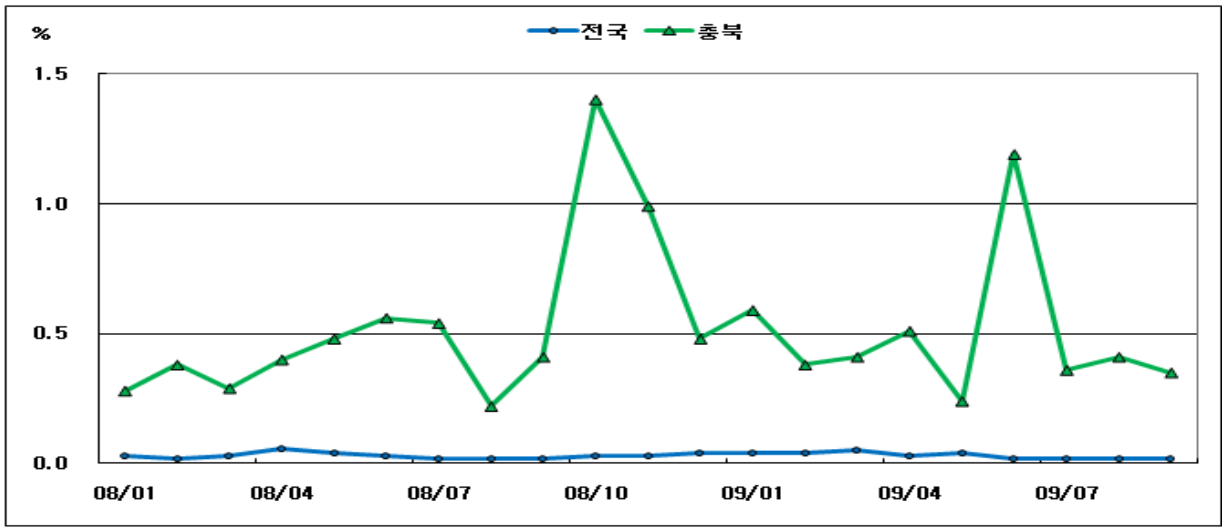
주 : 1) 총수신은 예금은행 예금(CD, RP, 표지어음 제외)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합계임.
2) 총여신은 예금은행 대출금과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어음부도율은 충북지역 전국 평균을 꾸준히 상회함

○ 도내 기업들의 시중 자금사정을 판단하는데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어음부도율은 2009년 평균 0.49%로 전국(0.03%)보다 높음

- 어음부도율의 변이계수를 보면 전국 0.37, 충북은 0.57로 나타나 어음부도율의 변동성은 전국평균보다 충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평균 부도율은 청주(0.57%), 충주(0.23%), 제천(0.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3. 어음부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7. 충북지역 수출 · 수입

❑ 2009년 수출 및 수입은 전년도 수출(3.3%), 수입(10.0%) 증가세에서 감소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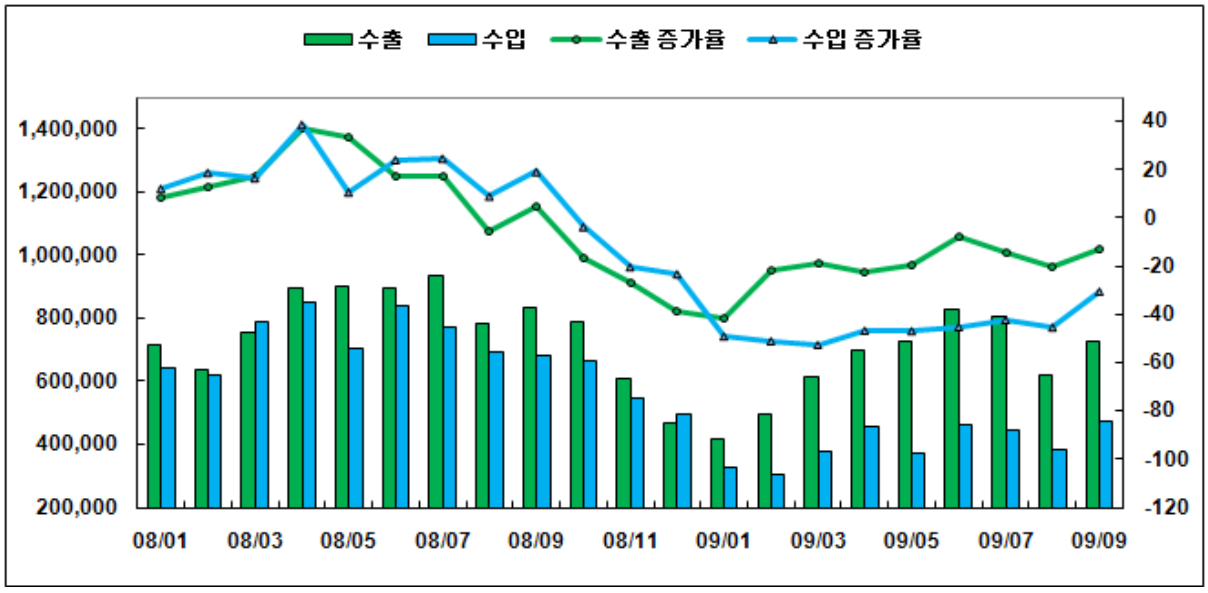
○ 2009년 충북 수출 증가율은 9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19.3% 감소

- 금년 초부터 매우 큰 감소율을 보이면서 특히 1월에는 41.6%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6월 7.6% 감소까지 축소되었으나 7월 이후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어 9월 현재 12.9%의 감소율로 나타남
- 이러한 높은 수출감소세는 충북의 수출입 비중이 큰 전자전기제품(-43.3%), 화학공업제품(-37.2%), 철강금속제품(-47.2%) 부문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충북 수출 둔화에 주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 등 IT제품에 대한 수출의존이 지속됨

- 충북 총수출에서 전기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66.2%에서 2006년 71.4%로 확대 된 이후 2007년 62.5%, 2008년 56.6%, 2009년 9월 누계 현재 56.6%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중을 보임
- 충북 IT 제품의 수출은 9월 현재 1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전국 14.3% 감소)

그림 14.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수입감소율은 수출감소율을 크게 하회

○ 충북의 주력 수출품목의 수입의존도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9월 현재 충북 수입

누계 감소율은 45.4%

- 2009년 수입은 1월 전년동월대비 49.0%의 감소율로 출발하였으며 수입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9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45.4% 감소하면서 전년도 10.0% 증가를 크게 하회 함

❑ 2009년 9월 현재 누적 무역수지는 23억 2천 9백만 달러 흑자(전년도 9억 1천 4백만 달러 흑자)

○ 충북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의 형태로 매월 흑자를 기록하였고, 전국 무역수지도 흑자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9월 현재 301억 4천 4백만 달러 흑자 기록(전국 전년도 132억 달러 적자)

❑ 품목별 수출 중 전자전기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충북수출 중 56.6%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6.7% 감소에 이어 9월 현재 누계 19.5% 감소함

- 수출 상위 10개 상품의 수출비중 순위는 2008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전기제품에 이어 기계류(21.0%), 화학공업제품(8.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6.0%) 순으로 나타남

○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제품의 수출은 2009년 9월 까지 총 27억 1천 달러를 수출

- 전년 누계비 22.6% 감소(전국 14.4% 감소)

○ 충북의 산업별 수출 구성은 중화학공업이 89.4%, 경공업 7.8%, 1차산품 2.8% 점유

표 7. 상위 10개 품목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8년				2009년 9월 누계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1	전자전기제품	5,206	56.5	-6.7	전자전기제품	3,353	56.6	-19.5
2	기계류	1,959	21.3	19	기계류	1,245	21.0	-21.8
3	화학공업제품	817	8.9	16	화학공업제품	506	8.5	-21.5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87	5.3	24.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56	6.0	-4.6
5	철강금속제품	374	4.1	35.9	철강금속제품	199	3.4	-33.2
6	농림수산물	208	2.3	29.7	농림수산물	157	2.6	3.7
7	섬유류	108	1.2	7.3	섬유류	74	1.2	-10
8	잡제품	20	0.2	-11.3	잡제품	18	0.3	13.4
9	생활용품	23	0.2	-13.3	생활용품	14	0.2	-17
10	광산물	11	0.1	-30.3	광산물	6	0.1	-29.7
합계		9,213	100.0	3.3	합계	5,928	100.0	-19.3

주 : 괄호안은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입 중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이 높은 비중을 보임.

○ 2009년 9월까지의 전자전기제품의 수입 비중은 25.3%이며 전년누계대비 40.4% 감소함 (전년도 7.6% 증가)

○ 전년누계비로 화학공업 제품은 33.6% 감소한 9억불을 수입하였고, 철강금속제품은 42.9% 감소한 5억불을 수입

○ 용도별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각각 46.1%, 47.0%, 38.1% 감소함

- 용도별 수입재의 구성비는 원자재가 52.5%, 자본재 34.7%, 소비재 12.4%를 차지

표 8. 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8년				2009년 9월 누계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1	전자전기제품	1,945	23.4	7.6	전자전기제품	910	25.3	-40.4
2	화학공업제품	1,765	21.3	-3.5	화학공업제품	909	25.3	-33.6
3	철강금속제품	1,094	13.2	44.6	철강금속제품	510	14.2	-42.9
4	농림수산물	790	9.5	23	농림수산물	446	12.4	-24.1
5	기계류	1,142	13.8	5.7	기계류	384	10.7	-60.9
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273	15.3	12.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47	6.9	-75.6
7	섬유류	149	1.8	-8.6	섬유류	98	2.7	-12.5
8	광산물	93	1.1	3.2	광산물	51	1.4	-24.5
9	잡제품	27	0.3	68.8	잡제품	31	0.9	40.8
10	생활용품	22	0.3	-17.9	생활용품	12	0.3	-33.9
합계		8,299	100.0	10	합계	3,598	100.0	-45.4

주 : 괄호안은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Ⅲ. 2010년 충북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전망

❑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0.1%대 성장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4.3% 내외로 전망

○ 2009년 하반기 이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상향조정 중임

○ 반기별로는 유사한 성장률 기대

-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 전환이 예상되고, 2009년 4/4분기에는 4%대의 성장률이 기대됨
-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경기가 호전되면서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된 이후 하반기에는 소폭 감소하지만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국내 경제는 4.3% 성장 할 것으로 전망 됨.

○ 대외적으로 지난해 말 국제금융시장 신용 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2009년 세계 실물경제 위기(Global crisis)로부터 벗어나 세계 수요가 증가되어 상반기 국내에 양의 효과가 기대됨

-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도 4/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 수요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1]는 92.3%에 달함

○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면서, 실물경제도 동반 빠른 회복세 보이며 내수시장의 큰 폭 상승 기대

-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고, 시중의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소비가 증가할 전망
- 유가상승,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이 경제 회복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경제 성장세에 다소 못 미칠 것임
- 경제침체에서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금리

1) 대외의존도 = 수출입 거래 규모 / GDP * 100

인상 및 유동성 축소 등은 시기상의 문제로 확대 금융정책을 통한 효과가 줄어들면서 상반기 회복세를 상쇄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대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북한과 무력 충돌 및 핵문제 등 대북발 경제 risk가 상존함
  · 북핵문제에 따른 사회 불안문제도 우려할 만한 점임

⇒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국제유가 등 해외 주요 변수와 국내 변수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

표 9. 국내 주요연구기관의 2010년 경제전망

%	SERI	LGERI	KDI	NABO	KERI	기획재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4.3	4.2	5.5	3.8	3.2	5.0	4.3
민간소비	3.1	3.7	4.9	2.6	2.9	4.2	3.6
건설투자	2.1	3.2	3.1	2.7	1.3	3.2	2.6
설비투자	8.2	8.1	17.1	9.8	9.0	11.0	10.5
수출	14.5	15.0	7.9	7.0	6.6	13.2	10.7
수입	21.8	23.7	11.3	8.8	9.2	21.1	16.0
소비자물가	3.3	2.7	2.7	2.5	3.0	3.0	2.9
실업률	3.8	3.4	3.4	3.5	3.6		3.5
환율(원/$)	1,100.0	1,140.0		1,186.0	1,145.0		1142.8

자료 : 정부 및 각 연구소의 2010년 경제전망에서 발췌.

❑ 2010년 민간소비가 증가 예상

○ 2010년 중 민간소비는 2009년의 하반기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3.6% 증가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9년 2/4분기가 전기대비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4/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6.2%의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됨
- 2009년 민간소비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것으로 예상됨

○ 2010년에는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소득효과가 발생하고,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6%대의 성장이 전망됨

-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해왔던 고용시장의 냉각과, 실질임금하락 등의 저해요인이 개선되면서 양의 소득효과가 기대됨
  · 2010년 고용상황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금융불안정에 따른 자산가치가 감소했던 요인이 개선되면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주가지수(KOSPI)가 1,600선을 회복하는 등 자산가치가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크게 증가

○ 저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을 확대한 결과, 가계부채의 증가와 출구전략의 하나로 기준금리를 상승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승 등이 소비 회복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2010년 설비투자 증가세는 크게 증가할 전망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투자활동이 재개되며 설비투자 증가율이 10.5%로 예상 됨

- 2009년 설비투자는 경기침체 등 각종 불확실성 증폭으로 상반기 19.5%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감소폭은 완화되었으나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현재 제조업 재고지수도 4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설비투자수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체의 자본재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리 저하와 정부의 투자 유인정책의 폐지 등은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들은 현재 설비투자 수준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소극적인 자세임

  · 삼성경제연구소 설문결과 현재 설비투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8%에 그침

❑ 2010년 건설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

○ 2009년 건설투자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약 2.6% 정도의 성장을 전망

- 국토균형개발사업인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사업, 공공 SOC 투자 등 정책적 건설 수요 확대가 예상됨
- 다만 민간부문은 실물경기의 침체와 함께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큰 폭의 감소 예상

○ 2010년은 정부의 주도적인 기조아래 2009년보다는 투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큰 폭의 건설투자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9년 약 2.8% 수준의 전망치보다 하회하는 2.6% 수준의 증가가 예상 됨

○ 전체 건설투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미분양 주택은 상승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2010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두 자릿수의 증가가 전망 됨

○ 2010년 수출은 2009년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큰 폭의 증가세로 예상되며 10.7%의 증가율 예상

- 세계경제가 2009년 2/4분기 이후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상황이며, 2010 년 세계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IMF)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회복세 국면과 주요 품목의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
- 수출주력 품목인 IT 및 전자제품, 선박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가격증가가 두 자릿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수입은 수출 증가보다 큰 폭의 상승

- 수입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증대효과로 전년대비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재 가격은 2009년 2/4분기 전분기 대비 10.6% 상승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인 상승 전망

○ 2010년 소비자물가는 비용측면에서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2009년 보다 소폭 상승 전망

- 201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안정기준인 3.0%를 다소 하회한 2.9% 수준으로 전망됨

○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회복세가 증가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국제 원유가격도 상승하는 등의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 될 전망

-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고용상황이 개선 기대심리가 증가하면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물가에 전가하는 경우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노동시장의 개선, 실업률 다소 하락

○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상승함에 따라 내수 증대가 전망되고, 수요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며 노동시장 침체 개선되며, 실업률도 다소 하락할 전망

- 2009년 실업률은 3.7%로 예상되며, 2010년은 약 0.2%p 하락한 3.5% 전망

○ 고용창출효과가 큰 민간소비가 3.6%대의 상승과 설비투자도 증대하면서 고용창출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도 공공건설부문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주도의 건설투자와 고용확대 정책 등이 고용 흡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2009년 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

2. 충북경제 전망

❑ 2010년 충북경제는 전국보다는 높은 성장률 전망

○ 충북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및 국내경기 회복 기대감과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5.0% 성장률 전망(전국 4.3% 전망)
- 2010년 충북 경제성장률은 국내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이 예상 되며, 최근 충북을 중심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등 투자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 상존
- 2009년의 충북지역 산업생산활동 및 수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0년에도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율이 상승세가 전국평균 이상일 것으로 기대

○ 기업체감경기(BSI)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지역소재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BSI)는 상반기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준치(100)를 상회하면서 체감경기가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

❑ 2010년 지역내 민간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도민 소득의 증가여부가 좌우하는 만큼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이 발생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용사정이 전국수준보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실업률은 2%대 중반의 증가율로 전망함
  · 2009년 누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충북이 2.1%로 전국평균(-0.4%)을 크게 상회
  · 실업률도 9월 현재 전국 3.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인 1.3%에 그침
- 투자유치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도 증가 예상
  · 민선 4기 21조 투자유치가 100% 시현될 경우 12만 8,412명의 유입이 예상됨

○ 지역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물가상승요인의 변화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여부가 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도 있음

❑ 설비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보다 높은 성장세 시현 전망

○ 민선4기 적극적인 신규투자 유치로 전국적인 설비투자 증가 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경기상황 악화로 미뤄왔던 설비투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12.8%로 전망됨
  · 21조원의 투자유치로 신규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됨
- 또한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 역시 설비투자 증가세에 기여

○ 최근 세종시 건설논의 결정에 따라 세종시 인근 산업단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전망

○ 2010년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등의 영향으로 충북은 3.0%의 건설투자 증가 전망

- 오송첨단복합단지, 세종시 건설, 4대강 관련 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최근 세종시 건설논의 결정에 따라 세종시 인근 지역의 파급효과가 상이 할 전망

○ 도내에서 수행되는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지역건설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 필요

○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은 2010년 건설투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정부의 주택대출 DTI규제 정책, 금리 인상압력 등은 건설경기 상승세를 다소 둔화 시킬 전망

❑ 수출은 충북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예상

○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충북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간 14.5%로 전망
  · 세계경제는 2/4분기 이후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IT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부품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실질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산업기초소재 및 최종상품 재화까지 전 품목에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에서 전자전기제품비중이 56.6%인만큼 기여도가 높음
- 전세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전지산업의 경우 전자제품의 고기능화, 소형화 추세에 따라 고성능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또한 태양광 기초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충북의 태양광산업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향후 바이오산업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인상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도 있음

❑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 따라 2010년 중 수입은 원자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17.2%로 전망

○ 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 인상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입물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증가율 확대

○ 2010년 지역 고용시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서비스업으로 확대 되며 완만한 증가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의 노동시장은 2차 산업은 크게 증가한 반면 3차 산업은 소폭 증가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짐

· 2009년 10월 현재 전년 누계 증가율은 2차산업 11.8%, 3차산업 0.3%(전국 각각 -3.7%, 0.4%)

○ 도내에 유치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및 증설을 통하여 본격적 생산을 가동하게 되면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환경의 회복으로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규모는 2009년보다 확대될 전망

❑ 지역물가는 전국 추세와 동행하는 가운데 안정화

○ 2010년 물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적 상승압력 요인이 다시 증가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정선인 2.7%대의 상승 전망

- 충북지역 물가는 내생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전국 물가 수준과 마찬가지로 2010년 충북지역물가는 2009년 하반기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 원유가격 인상, 세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은 도내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MEMO

MEMO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전화 | 043-220-1107
팩스 | 043-220-1199
http://www.cri.asia